

毗盧遮那佛無生戒牒

夫無生戒者，建千聖之地；生萬善之基。基地不營，聖善何立。如蒸沙之作飯，豈有成時；似刻糞而求香，終無得理。欲渡苦海，必假慈航；擬破昏衢，須然慧炬。所以，一切衆生，不受此戒法者：欲成佛道，無有是處。此戒法中，一切有形·無形，皆應受持是故。

毗盧遮那親宣。

文殊菩薩傳授，諸佛由茲成道，菩薩賴此因圓，除煩惱之清涼；嚴法身之瓔珞。於此戒內，不分有情·無情，皆能成就無漏法身。若有善男信女：欲受戒者，不得愛身·捨身·有心·無心。若愛身者，即墮邪魔；若捨身者，即名外道。若以有心受戒者，即續生死；若以無心受戒者，即入續斷滅。若以性俱受，不能成就。此戒法者，本來無一·無凡·無聖，亦無善·無惡。若有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依此行者，皆得受持。

一 受淨信四歸依

歸依佛無形。歸依法無生。歸依僧無諍。歸依最上無生戒。

二 懺除諸三業罪

本來清淨道，爲迷無所知，造罪無邊量，受此煩惱身，我今求哀懺，早證佛菩提。

三 發弘誓六大願

- 一者，一切衆生未成佛，我亦不登正覺。
- 二者，一切衆生所有諸煩惱，我皆代受。
- 三者，一切衆生所有諸昏憂，令得明智。
- 四者，一切衆生所有諸災，令得安隱。
- 五者，一切衆生諸貪嗔癡，令作戒定慧。
- 六者，一切衆生，皆與我等，同登正等覺。

四 最上乘無生戒

衆善不修，諸惡不造。

右條具前 如法精持，一歷耳根，皆證菩提。思惟修習，永作舟航，同出迷津，齊登覺岸。如斯勝利，廣大無窮。

佛紀 年 月 日

海印寺 金剛戒壇 印

傳戒大和尚

羯磨阿闍梨

教授阿闍梨

受戒弟子 姓名 法名 收執

受戒番號

비로자나불 무생계첩

무생계는 千聖을 세우는 땅이요, 萬善이 생겨나는 터이니 땅과 터전을 다스리지 않으면 聖과 善이 어찌 설 수 있으랴. 마치 모래를 찌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어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며, 또 오물덩어리를 깎아 향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끝내 될 리 없으리다. 苦海를 건너려면 반드시 자비의 배를 빌려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없애려면 반드시 지혜의 횃불을 밝혀야 하느니.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이 계법을 받지 않고서 불도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니라. 이 계법은 온갖 형상 있는 존재이거나 형상 없는 존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받아 지녀야 하느니, 이러한 까닭으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문수보살께서 몸소 전해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계를 말미암아 깨달음을 이루셨고, 모든 보살들 또한 이 계를 의지하여 因行을 완성하셨나니 번뇌를 없애는 청량함이며 범신을 장엄하는 보배라 할 것이로다.

이 戒 안에서서는 유정·무정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능히 번뇌 없는 범신을 성취할 수 있음이라. 만약에 善男信女가 이 戒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애착하거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을 버리거나 또는 有心·無心으로써 받아도 아니 된다. 자신에 대해서 애착하면 邪魔에 떨어지고, 자신을 버리면 外道라 불리운다. 유심으로써 받으면 생사를 계속하게 되고, 무심으로써 받으면 斷滅에 빠지게 되며, 성품과 형상으로 함께 받아도 성취할 수 없느니라.

이 계법은 본래 일정함이 없어서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으며,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비구와 기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모두 받아 지닐지니라.

일 네 가지 歸依戒 를 받아 깨끗이 믿어야 한다.

無形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無生의 법에 귀의합니다.

無諍의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최상의 無生戒에 귀의합니다.

이 세 가지 업의 모든 죄를 참회하여 없애야 한다.

도는 본래 청정하건마는 미혹 때문에 아는 바가 없어서 한량없는 죄를 짓고

이 번뇌의 몸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애담프게 참회하고 빨리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리라.

삼 여섯 가지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첫째, 일체 중생이 성불하지 않으면 나도 정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둘째,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를 내가 모두 대신 받겠습니다.

셋째, 일체 중생의 모든 어리석음을 밝혀 주겠습니다.

넷째, 일체 중생의 모든 재난을 안온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체 중생의 모든 貪·嗔·癡를 戒·定·慧로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일체 중생이 모두 나와 함께 正等覺에 오르게 하겠습니다.

사 최상승의 무생계이니 모든 선을 닦지 않고 모든 악을 짓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조문을 여법하게 잘 지낼 것이니라. 한 번 귀에 스치기만 하여도 모두菩提를 증득할 것이며, 사유하고 닦아 익힌다면 영원히 배를 만들어 함께 미혹의 나루를 벗어나 깨달음의 언덕에 오르리니 이와 같은 수승한 이로움이 넓고 커서 다함이 없으리라.

수계 연월